



영산강·낙동강 물로 꽃피운 '매직트리' '2015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18~20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8일 개막식이 열린 두류공원 특설무대에서 내빈들이 영호남의 상생·화합을 기원하며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길어온 물을 매직트리에 부어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김영선 전남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영호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광주일보와 대구의 매일신문이 주최·주관했다. /대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생·화합·번영... 하나 된 영호남

영호남 문화대축전 성료 내년 행사 광주에서 열려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2015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관련기사·화보 18면> 광주일보와 대구 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번 문화대축전은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 광장에서 영호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내외빈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벽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홍보관엔 호남 28개·영남 35개 등 모두 63개의 농수축산품 부스가 설치됐다. 각 부스는 영호남지역에서 재배한 지역 특산

품을 구입하려는 참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3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1만 명 이상의 지역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추정하고 있다. 양측간 문화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동서화합 판소리대전 '동편제와 서편제'를 비롯한 '영호남 레크리에이션 한마당', '영호남 생활예술공연', '전통 각설이 공연' 등은 행사장을 찾은 지역민

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지'는 행사 주제와 맞게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 다지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영호남 문화대축전은 지난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2회째인 올해는 대구에서 개최됐다. 내년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년 총선 지역구 244~249석

선거구획정위안, 전남북 등 농어촌 5~6석 축소...반발 클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획정위가 제시한 범위내에서 지역구 숫자가 확정된다면 전남에서 최소 1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전망이며, 광주 동구가 포함된다면 광주·전남에서 최대 2곳의 의석

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 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

시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획정위가 지역 선거구를 최대치인 249개로 결정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8~9석 정도가 늘어나 농어촌 지역에서 최소 5~6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를 줄여더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다시 충돌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안이 내달 13일까지 국회로 넘어온 뒤, 농어촌 의원들의 집단 반발 등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혁적 국민정당' 천정배, 창당 선언

12월 준비위 구성·1월 창당 "안철수·정동영과 함께할 수 있어 새정치 의원들 용감한 결단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밝혔다. 천 의원은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각계 전문가들을 규합해 10월내에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며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은 오는 총선



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신당은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며 다양한 입장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중용'의 길을 가야 한다"며 "중용"을 신당의 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미 새정치연합에서 미래, 희망을 잃은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의원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용감한 결단을 내려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안철수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추진하는 '신민당'과 원외의 '민주당'과의 연대를 "얼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연석회의, 문재인 투표 없이 재신임

문 대표, 재신임 투표 철회할 듯 비주류 불참 '반쪽'...효과 미지수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확인하며 더 이상 문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배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기사 4면>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후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 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당 대표는 당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견해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연석회의에서 또 한번 재신임을 확인한 만큼 재신임을 묻는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시간 이후 당은 정부여당의 민생파탄 등 실정을 바로잡고 수권 정당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추석 전 하기로 한 재신임 투표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

다. 문 대표는 전날 "합동총회에서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자는 분명한 결의가 있으면 재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연석회의 자체가 상당수의 비주류 인사들이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였을 뿐 아니라 비주류 측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내 계파 갈등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재적 159명 중 약 90여명의 국회의원·당원들이 참석했다. 비주류인 안철수·박지원·박영선 의원과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주승용·문병호·최원석 의원 등은 불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광주시오림 | 062)605-1114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 신성자동차(주) 광주 경서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714-002226-0001

Mercedes-Benz